

“청년취업사업 실효성 부족... 전환 필요”

평창올림픽 성화, 내일 전북 밝힌다

남원·임실 등 6개 지역 총 277.7km거리 성화봉송

김현철 도의원, 내일채움공제 예산 증액 주장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예산 과다편성도 지적

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진안·사진)은 지난 24일 도 경제산업국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북형 청년취업사업을 삭감해 내일채움공제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형 청년취업사업은 청년취업자 1인당 1년에 78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이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불입한 1,600만원 적금에 이자를 더해 주는 사업으로써 후자가 더 매력적인 사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두 사업을 비교해보면 청년내일채

움공제가 청년 입장에서 물론이고 고용측면에서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월등하게 우수한 사업으로 설계됐다.

더불어 청년공제사업이 사업비 80% 가까이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니 예산확보도 훨씬 수월해 사업량을 더 증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논리다.

지난 15일 도의회 상임위 행감에서 전북형 취업지원사업이 예산지원기간 종료 후 시점에서 고용유지율이 절반에 그친다며 1년짜리 취업지원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산 과다 편성도 문제삼았다.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는 창업 교육과 ICT 기반 사업화 지원에 대비 9억8천만원

을 투자하여 기술형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실적을 보면 창업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고 지식서비스 창업교육 또한 실제 창업 실적을 보면 일반 차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목적과 괴리가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식서비스 창업 교육은 1주~2주에 불과한 교육과정 당 교육인원은 10~20명으로써 과정 당 예산은 3천만원 내외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지만 실제 창업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창업 사례를 보면 차킨 음식점, 여관, 카페 등으로 지식서비스업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일반 서비스업 창업이 주를 이뤄 기존 자영업자와 밤그릇 경쟁을 해야 하는 레드오션 창업이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현철 의원은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업과 창업지원 사업들이 형식에 그칠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정책설계가 중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28일 전북에 온다.

지난 24일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성화 봉송단이 28일 남원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전북에서 성화봉송에 나선다.

성화 봉송은 남원과 임실, 무주, 전주, 익산, 군산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총거리는 277.7km이다.

주자는 체육인과 예술인, 장애인, 학생 등 420명이 선정됐는데, 전북현대프로축구단 최강희 감독과 ‘다이온킹’ 이도국 선수, 애틀랜타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김동문(원광대교수)씨 등이 함께 한다.

아울러 도내에서 성화 봉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회를 염원하는 각종 행사도 열린다.

/김진근 기자

“전북도 취업지원사업 예산편성 부적절”

마구잡이식 사업추진에 유사 중복성·타당성 부족 논란

지난 24일 전북도 경제산업국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종 창업사업과 취업지원사업의 유사 중복문제와 마구잡이식 사업추진에 따른 방만한 예산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희수) 소속 의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창업지원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유사 사업들의 중복지원이 팽배하고 창업 컨설턴트들의 예산 따먹기식으로 전락해 각종 창업지원사업의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백경태(무주) 의원은 순도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실시여부에

대한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문제삼았다.

강용구(남원) 의원의 “소상공인 실태 조사가 다른 조사용역인 유통산업 실태조사와 조사범위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중복부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백경태 의원 등은 두 실태조사 용역의 중복부분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의 용역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은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 시군에 대비 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출범식 가졌다.

지난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김택천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상임대표, 14개 시장, 군수 및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전북도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출범식 및 전북인 공감마당 행사를 (관련기사 11면)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갈수록 감축

전년대비 예산 13억5000만원 줄어 최은희 도의원, “시대 역행” 꼬집어

전북도의회 최은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이 지난 24일 열린 건설교통국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저상버스 도입 사업량 및 예산 감소는 증가하는 교통약자를 고려할 때 현실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률은 전체 시내버스 중 20%에 불과한데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2015년 32억, 2016년 19억7000, 2017년 12억 4000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그런데 올해 사업량 17대도 구입하지 못하고 9대로 감축, 전체 사업량의 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2017년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6억2천여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5천여만원이 줄었다.

저상버스는 노인, 어린이, 임산부, 휠체어이용자, 유모차이용자 등 교통

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차체를 낮춘 버스로 전라북도 시내버스 829대중 166대만이 저상버스로 운행 중이다. 도는 2013년 72대, 2014년 34대, 2015년 33대, 2016년 27대로 신규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오다 올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17대에서 9대로 축소했다.

최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만명, 장애인등록자가 13만명 정도나 되고 휠체어이용자, 유모차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저상버스 도입량

을 감소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교통복지예산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도 건설교통국 김천환 국장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올해 국비가 감소되어 부득이하게 사업량이 줄었다”며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다양한 교통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 노력 결심

탄소포인트제 실천 릴레이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도내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소속 직원들이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저탄소생활 실천에 동참한다.

전라북도도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전북기후 환경네트워크는 지난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승일 행정부지사과 정규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유해숙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포인트제 참여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전북도가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소속 직원들이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소속 직원들은 탄소포인트제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생활 실천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도는 주민들의 저탄소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탄소포인트제 개인 가입에 한계가 있어 각종 기관 단체 등과 릴레이 업무 협약을 맺고 저탄소생활 실천을 유도해 왔다.

협약을 통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면 소속 직원뿐 아니라 주변 가정에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그동안 전북도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릴레이 협약을 추진하여 15회에 걸쳐 약 1억9천세대를 참여시켰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가정 내 저탄소생활 실천 등 도내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된다”며 도민들의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총장 이호인

JEONJU UNIVERSITY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